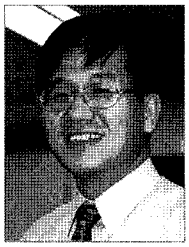
인연 – 삶, 그 기묘함



장 긍 순 전무
바이엘코리아(주)

살다 보면 누구나 뜻하지 않은 만남이 있기 마련일터이다. 삶의 오묘함과 인연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 드리죠.

기묘한 인연 하나,

1984년 이른 봄 쯤 한 아주머니가 절 찾아와 중대한 결정에 도움말을 달라고 청했다.

병원 중환자실에 한달 째 입원하고 있는 남편의 치료비로 벌써 전 재산 2,000만원의 5분에 1인 400만원이나 들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계속 입원 치료를 한다 해도 정상인으로 회복할 가능성은 10%로도 안 된다는 것이었고 그렇다고 바로 퇴원시키면 당장 목숨 연장도 어렵다는 것이었다. 남편을 포기할 수도 없지만 의사선생님도 희망이 없다고 하는 상태에서 계속 입원 치료하면 6개월도 되지 않아 열 살과 일곱 살 난 두 아들과 알거지가 되어 길바닥에 나 앉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결혼 생활 10년에 두 아들까지 낳아 단란하게 살아오던 아내가 당시 대졸 신입사원 5~6개월치 정도의 돈 때문에 남편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현실이 총각인 나에게 큰 서글픔으로 다가왔다. 결혼이란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는 세상살이 모르는 철없는 회의도 들었다. 그러나 당사자는 오죽하면 그런 고민과 갈등을 해야 하고 잘 알지도 모르는 내게 도움말을 청하고 있겠는가? 무슨 말을 해 줄 수가 있는가?

그 분들과의 처음 인연은 이러하다.

사실 이 분들은 나와는 개인적으로 별 관계는 없었다. 지방에서 대리점 관리를 하고 있던 어느 날 그 남편 분이 우리 대리점으로 들어왔다. 난 즉각 4년 전 군대 시절 한 울타리 내의 이웃 부대에 근무하던 하사관이라는 것을 알아 봤다. 우리 부대의 인사계와 친분이 있어서 가끔 놀러 왔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에게 날 알아 보겠냐며 나를 소개했다. 그도 날 알아보고 반가워했다. 왜냐하면 그도 객지에서 조금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제대한 후에 그도 제대를 했으나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일년 전에야 처의 고향 쪽에 정착하여 소 몇 마리를 키우며 겨우 자리를 잡아가던 터였다.

그 뒤에 한 번 더 본인이 찾아 온 뒤로는 그 아내가 대신 약품을 구입하러 찾아왔다.

그 아내가 세 번인가 다녀간 뒤 어느 날 아침 일찍 나를 급하게 찾아 왔다. 남편이 어제 밤에 오토바이 사고를 일으켜 근처의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 왔다는 것이었다. 마땅히 아는 사람도 없고 급한 마음에 얼굴이라도 알고 있는 나를 찾아 온 것이었다.

함께 응급실로 달려가 보니 마른 형이었던 얼굴이 마치 빵빵한 축구공처럼 심하게 부어올라 어디가 눈이고 코이고 입인지 분간 못할 정도였다. 두개골도 손상되고 의식은 전혀 없었으며, 혈압, 맥박, 체온, 호흡 등도 아주 심각한 상태였다.

담당 의사가 내게 보호자이냐고 물었다. 할 수 없이 그렇다고 하니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니 가능한 한 모든 가족에게 연락하라고 했다. 그 부인에게는 차마 그대로 말을 전할 수 없어서 의사의 말은 생략하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터이니 남편의 부모님에게 급히 오시라고 연락하라고 했다.

그 후 다행히도 환자의 상태는 기적적으로 빠르게 회복되어 사경은 겨우 넘기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사고의 충격으로 상실된 기억도 채 온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다. 아내와 아들, 부모 형제 등 직계 가족들은 기억하는데, 관계가 없었던 나는 문병 갈 때마다 다시 설명해야 겨우 조금 알겠다는 듯하다가 10분만 지나면 다시 알아보지 못했다.

그 후 얼마쯤 지나서 그 부인이 나를 다시 찾아 온 것이었다. 정말 무슨 말을 해 줄 수 있는가? 난 응급실에서 처음 보았던 상황을 이야기 해드리고 책임질 일이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공자 말씀을 드렸다.

"사실은 첫날 응급실에서 이미 의사가 가망성이 없다고 말하여 온 가족을 오시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날과 비교한다면 지금의 상태는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도 의사가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한두 달만 더 기다려 보시지요. 기적이 더 연장될 수도 있으니까요. 희망을 갖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이 무책임한 말을 그 아내는 굳게 믿고 돌아갔다.

그로부터 두 달 후 그 아내가 찾아와 환자의 상태가 아주 호전되어 이제 병원에 더 있

을 필요 없이 집에 가서 요양하면 된다고 하여 내일 퇴원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그 남편이 혼자서 직접 나를 찾아와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파손된 두개골 부분을 플라스틱으로 덮는 수술을 준비하기 위해 병원에 왔다는 것이었다. 당시에 특별한 종교를 갖지 않았던 내게도 이것은 정말 기적이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에 내가 그 분 집으로 직접 찾아가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정상적인 모습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는 그 분들과의 인연은 끝이 났다.

잘 알지도 못하던 사이에서 불과 열 번도 채 되지 않은 만남이 그렇게 기막힌 인연으로 연결될 줄이야.

책임질 수 없는 나이기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한 가족이 큰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 무척 신기했다. 아마 내가 조금이라도 책임져야 할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때로는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의 조언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

그 똘똘하던 두 아들들은 이제 벌써 서른 중반에서 마흔을 바라보는 훌륭한 성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 후 그 지역이 신도시로 개발되었으니 아마도 경제 사정도 좋아져 화목하고도 행복한 가정으로 잘 살고 있을 것이다.

기묘한 삶 하나,

몇 년 전 어느 겨울 날 명동성당에서 김대건 신부님의 짧은 삶에 대한 안내판을 보고 있었다. 그 옆에서 50대 중반의 남자가 내게 들으라는 듯 혼자 중얼거렸다.

"김대건 신부님이 27살 밖에 못 살았네?!"

"네, 일찍 순교하시어 막상 신부로서는 일년 밖에 살지 못 했어요."

"난 혼수 상태에서 있다가 27년 만에 깨어났어요. 긴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떠보니 세 살짜리 딸이 서른 살 처녀가 되어있더군요. 기가 막히지요…. 그 뒤로 전 가톨릭이 아닌 개신교 신자가 되었고 항상 좋은 일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고 들으며, 좋은 말만 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건강은 온전하지 못한 상태라 나쁜 일들로 충격을 주지 않으려고 해요. 요즈음은 항상 기쁘고 고맙고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걸 알려 주고 싶어서 가슴이 벅차요. 그래서 오늘도 좋은 것을 듣고 보려고 이 곳을 찾았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어 보니 내겐 고등학교 선배님이기도 했다. 그 낯선 이가 어느 날 우연한 장소에서 기묘하게 내게 다가와 삶의 하루 하루가 소중하고 행복한 순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자기의 능력과 관계없이.